

지팡이와 썩은 짚신에서 자란 느티나무



지정번호 수원-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51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5m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518번길 33
37° 19' 44.15" N
127° 00' 58.42" E



풍성한 모양으로 보이는 보호수(수원-3) 느티나무는 상광교동으로 가는 도로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이다. 나무높이가 14m, 가슴높이둘레가 4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가 4갈래로 갈라졌으며, 비스듬하게 사방으로 퍼져 위를 향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스님과 관련이 많다. 수원의 광교산에는 고려 말에 창성사라는 절이 있었다.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의 탐비(보물 제14호)가 있던 절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한 승려가 창성사에서 쉬어갈 때에 마당에 지팡이를 놓고 불공을 드리기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돌아와 보니 그 지팡이에서 새싹이 뿔뿔하게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스님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지팡이를 그대로 두었다. 후에 그 지팡이는 큰 느티나무로 자라났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예전에 창성사를 돕기 위하여 자주 절을 찾아갔던 어느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광교산에 있는 89개의 절을 찾아 마을의 축복을 빌러 갔다. 어느 날에 창성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마친 사내가 이어서 다른 절로 가기 전에 짚신을 벗어놓고 산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 비에 젖은 짚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썩더니 그곳에서 어린 느티나무가 자라났다. 나무가 자랄수록 마을에 많은 복이 내렸다. 이 이야기는 상광교산 인근의 하광교산에 자라는 커다란 느티나무의 전설과 중첩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 후 풍성하고 크게 자란 느티나무는 그 아래에서 불이 나서 며칠 동안 꺼지지 않았음에도 죽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팔기 위하여 밀동을 자르다가 죽었다. 잘려나간 나무도 결국 죽었다. 베어 없어진 느티나무 자리에 씨가 떨어져 어린 나무가 자라 지금의 느티나무로 자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후부터 사람들은 나무를 베지도 않았고, 불도 지르지 않았다.